

교 중에서 교실배식 및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를 각각 4곳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100명씩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급이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788부(회수율 : 98.5%)를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항목은 음식, 위생, 식단, 종사자의 반응성, 급식의 신속·정확성으로 구분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를 조사하였고 음식과 서비스면에서의 개선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조사는 다음과 같다. 급식에 대한 중요도 점수에서 위생은 4.50점, 종사자의 반응성 4.37점, 음식 4.16점, 식단 4.04점, 급식의 신속·정확성 4.01점으로 나타났으며 배식형태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행도 점수에서는 급식의 신속·정확성 3.17점, 음식 3.03점, 식단 2.87점, 위생 2.83점, 종사자의 반응성 2.73점이었다. 배식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위생, 급식의 신속·정확성은 교실배식이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음식에서는 식당배식이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급식의 신속·정확성에서 교실배식(-0.67점)이 식당배식(-1.01점)보다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에서는 교실배식이 식당배식보다 종업원 복장의 청결, 반납장소의 청결, 영양에 대한 정보 제공, 급식종사자의 친절, 배시시간의 정확함, 배식의 신속함에서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식당배식은 교실배식보다 음식의 맛($p < 0.01$), 음식의 양($p < 0.01$), 가격에 대비한 음식의 질($p < 0.05$), 음식의 위생($p < 0.01$)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급식개선에 대한 요구도에서 음식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반찬 맛, 후식의 제공, 식단의 다양성, 반찬 수의 증가, 밥 맛, 식단의 다양성, 음식 양의 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식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음식면에서는 교실배식은 음식 양의 증가에 대한 요구도가 식당배식보다 유의적($p < 0.01$)으로 높았고 식당배식은 음식의 균형된 영양, 식단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가 교실배식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음식의 청결, 식기류의 청결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불만에 대한 조속한 처리로 나타났다. 배식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교실배식이 식당배식보다 위생적인 음식 및 불만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유의적($p < 0.01$)으로 높았고 식당배식은 교실배식보다 급식종사자의 친절함, 신속한 배식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유의적($p <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51.7%는 급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식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급식을 중단할 생각에 대해 교실배식 급식소 학생들은 41.8%가, 식당배식 급식소 학생들은 24.5%가 급식을 중단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의적인($p < 0.01$) 차이를 보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교실배식은 음식의 맛, 음식의 양 등의 음식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이 낮은 반면, 식당배식은 식기 반납장소의 청결, 종사자의 반응성, 급식의 신속성 등의 서비스 측면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실배식은 음식이 교실까지 운반되는 과정 중 음식의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식당배식은 급식종사자와 학생과의 대면배식이므로 서비스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P3-10]

장원·김해 지역 초등학생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분석

우태정[†]·이경화·노정숙·윤현숙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육에 필요한 정성이 담긴 적절한 영양식을 공급하여 활기찬 학동기를 보내게 하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혜의 습득과 더불어 바람직한 식사습관 및 식사예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원시(484명)와 김해시(525명)의 초등학생 1009명(3학년이 328명, 4학년 349명, 5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 음식 맛, 분량, 외관, 위생상태, 배식태도 등 6부분에 대하여 각 항목 당 만족 5점, 보통 3점, 불만족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를 보면 각 항목 당 5점 만점에 음식 맛 4.15 ± 1.16 점, 식단에 대한 만족 4.04 ± 1.25 점, 위생상태 3.90 ± 1.29 점, 음식 외관 3.89 ± 1.31 점, 음식분량 3.87 ± 1.41 점, 배식태도 3.51 ± 1.55 점이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공되는 식단에 대하여는 3학년 4.24 ± 1.09 점, 4학년 3.87 ± 1.37 점, 5학년 4.04 ± 1.23 점으로 3, 4, 5학년 모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으나 4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만족도가 높았고($p < 0.01$), 음식 맛에 대하여는 3학년 4.38 ± 1.06 점, 4학년 4.03 ± 1.24 점, 5학년 4.04 ± 1.23 점으로 4, 5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p < 0.001$), 제공되는 음식의 분량에 대하여는 3학년 4.22 ± 1.23 점,

4학년 3.71 ± 1.46 점, 5학년 3.67 ± 1.45 점으로 3학년의 만족도가 4, 5학년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음식의 외관에 대하여는 3학년이 4.28 ± 1.14 점, 4학년 3.76 ± 1.38 점, 5학년 3.64 ± 1.30 점으로 4, 5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만족도가 높았고($p < 0.001$), 위생상태에 대하여도 3학년 4.10 ± 1.23 점, 4학년 3.87 ± 1.27 점, 5학년 3.80 ± 1.35 점으로 4, 5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p < 0.01$), 배식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3학년 4.16 ± 1.25 점, 4학년 3.37 ± 1.63 점, 5학년 3.03 ± 1.53 점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p < 0.001$).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4, 5학년에 비하여 3학년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기는 음식은 생선류(27.7%), 조개류(19.4%), 채소류(16.6%), 콩류(15.8%), 해조류(13.7%), 육류(6.9%)의 순으로 육류를 가장 적게 남기고 어패류를 가장 많이 남겼는데 이는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남긴 이유는 '맛이 없어서' 55.5%, '싫어서' 21.5%, '양이 많아서' 15.9%이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은 '양이 많아서(21.3%)', '미경험(10.8%)'이 4, 5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데 비하여 4, 5학년은 '맛이 없어서'가 3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학교급식을 통하여 편식습관이 교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조금교정 51.4%, 많이 교정 40.8%로 답하여 학교급식을 통하여 편식습관이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급식을 통하여 편식이 교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만족도가 중상정도인 위생상태, 음식외관, 음식분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배식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맛이 없거나 싫어하여 남기는 생선류, 조개류, 채소류, 콩류 등에 대한 요리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P3-11]

대학생 영양교육 전 후의 식행동, 체중조절방법 및 식이섭취에 관한 연구

정선희¹ · 장경자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대학생의 식행동, 체중조절방법 및 영양소 섭취실태에 대한 영양교육 효과를 평가하고자 인터넷 영양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남학생 122명, 여학생 103명) 총 225명을 대상으로 자가기록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은 비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정의, 원인, 비만으로 생기는 질병, 치료방법 등), 간식, 폭식 등의 문제점, 영양소의 체내 작용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으로는 신체계측, 식행동, 체중조절방법 및 식이섭취조사를 영양교육 전과 8주간의 영양교육 후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식품섭취실태는 주중 2일, 주말 1일의 회상법을 통해 자가기록식으로 자료수집을 한 후, Can Pro와 SPSS 10.0 program으로 각각 영양소 섭취량과 통계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23.4세, 여학생 21.3세이었다. 평균 신장, 체중 및 체지방량은 남학생의 경우 174.3 cm, 79.5 kg, 12.9 kg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160.3 cm, 53.0 kg, 14.0 kg이었다. 영양교육에 따른 체중 및 체지방량의 변화는 남학생의 경우 영양교육 후 체중 78.9 kg, 체지방량 12.5 kg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체중 52.7 kg, 14.1 kg으로 여학생의 체지방량은 다소 증가된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영양교육 전과 후의 복부지방울의 경우 남학생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은 영양교육 전인 0.98에서 영양교육 후에는 0.79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 < 0.01$). 아침 결식의 경우 남학생은 영양교육 전에 83.3%에서 영양교육 후 79.3%로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영양교육 전인 72.5%에서 영양교육 후에 62.3%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본인의 체중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경우, 남학생은 영양교육 전인 65.2%에 비해 영양교육 후에 81.0%($p < 0.05$), 여학생은 영양교육 전인 53.8%에 비해 영양교육 후에 75.5%($p < 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식이섭취조사 결과 열량의 경우, 남녀 대학생 모두 영양교육 전인 1548.2 kcal (69.8%), 1438.1 kcal (62.8%)에서 1486.1 kcal (68.7%), 1412.9 kcal (60.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권장량에 못 미치는 수치였다. 그러나 지방 섭취량과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영양교육 전에 43.6 g, 9.6 g에서 영양교육 후에 39.2 g, 8.6 g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p < 0.05$), 여학생의 경우도 영양교육 전에 45.1 g, 8.3 g에서 영양교육 후에 38.4 g, 7.4 g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 < 0.05$). 칼슘 섭취량의 경우 남녀 모두 영양교육 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권장량의 60%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철분 섭취량은 영양교육 전에 권장량의 65%에서 영양교육 후에 81%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 < 0.01$).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영양교육 참여 대학생의 식행동, 식이섭취실태